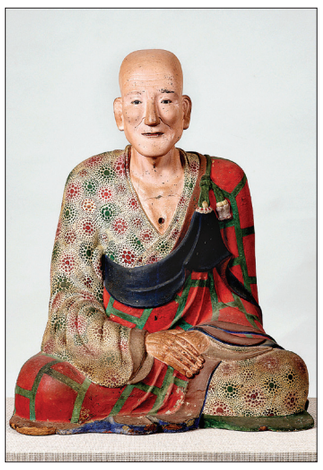
‘해인사 희랑대사상’ 보물서 국보로 승격



실제 고승을 재현한 유일한 조사상인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보물 제999호 · 사진)’이 국보 제333호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고려시대 고승의 실제 모습을 조각한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을 국보로 지정한다”고 10월 21일 밝혔다.

국보 제333호로 승격된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이하 건칠희랑대사좌상)’은 신라 말~고려 초까지 활동한 고승인 희랑대사(希朗大師, 생몰연대 미상)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다. 고려 태조 왕건의 스승인 희랑대사는 화엄학에 조예가 깊은 학승이었으며, 해인사 희랑대에 머물며 정진했다고 전해진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도움을 줬고, 왕건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해인사 중창에 필요한 토지를 하사하기도 했다.

‘건칠희랑대사좌상’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조각(祖師像 · 僧像)으로서, 고려 10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사한 시기 중국과 일본에서는 고승의 모습을 조각한 조사상을 많이 제작했지만, 한국에는 유례가 거의 전하지 않으며 ‘건칠희랑대사좌상’이 실제 생존했던 고승의 모습을 재현한 유일한 조각품으로 전래되고 있다.

‘건칠희랑대사좌상’은 조선 시대 문헌기록을 통해 해인사의 해행당, 진상전, 조사전, 보장전을 거치며 수백 년 동안 해인사에 봉안됐던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이덕무(1741~1793)의 〈가야산기(伽倻山記)〉 등 조선 후기 학자들의 방문기록이 남아 있어 전래경위에 대해 신빙성을 더해준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보로 지정한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을 비롯해 15세기 한의학 서적 ‘간이벽온방(언해)’ 등 총 5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도심 시민사찰 흥천사, ‘전법회관’ 문열다

흥천사 불교복합문화공간
10월 17일 전법회관 개관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개관식 테이프 커팅식 모습.

금곡 스님 “무산 스님 유지 계승”
연면적 3305㎡, 지하1층 지상3층
무량수전 아미타불 점안 법회도
남녀노소 편리한 신행 활동지원



흥천사 대방과 극락보전 등 주요전각에서 바라본 복합문화공간인 전법회관 전경.

조선조 개국 이후 창건 된 첫 왕실 원찰인 흥천사에 최신 메머드급 시설을 갖춘 전법회관이 새롭게 문을 열어 도심속 시민을 위한 불교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 돈암동 삼각산 흥천사(회주 금곡)는 10월17일 전법회관을 개관하며 아울러 무량수전 아미타불 · 지장보살 점안법회도 봉행했다. 조선의 왕실 사찰로서 위용을 떨치던 흥천사는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며 대처승의 불법 점유로 사세가 급감하는 등 폐사 위기에 직면했다가 2011년 10월 21일 조계종 품으로 돌아오면서 중창불사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건립된 흥천사 전법회관은 연면적 3305㎡(1000평)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졌으며, 2016년 7월 건축설계에 들어간 뒤 4년 4개월 동안 총 126억4100여 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사찰은 지역 주민들과 하나되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불사 원칙으로 건립된 흥천사 전법회관은 신도 및 내방객들의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물 구성을 살펴보면, 231㎡(70평) 규모인 지하 1층에는 지장전이 들어서 있다. 이 공간은 부모나 일가친척 등의 제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부모나 가족 친지의 제사를 집안에서 모시기 어려운 불자나 일반인들을 위해 사찰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했다. 1289㎡(390평) 규모인 지상 1층에는 사찰 종무소와 공양실(300명 수용) 겸 다실이 위치해 있다. 위로 올라가면 1057㎡(320평)의 지상 2층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는 409㎡(124평) 규모의 무량수전이 자리한다. 특히 무량수전은 법당을 가르는 기둥 없이 넓게 확 트인 구조로 동시에 1천명 이상 규모의 법회는 물론 문화공연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내부에는 몸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한 입식 의자 배치와 함께 명절 때 합동차례를 진행할 수 있는 영단도 갖췄다.

또한 무량수전 옆 공간에는 297㎡(90평) 규모의 북 카페를 비롯해 85㎡(26평) 규모의 어린이 청소년 전용 법당과 별도의 보육 공간도 마련하는 등 남녀노소 모두 신행 활동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한 것도 눈길을 끈다.

맨 꼭대기에는 병으로 고통받는 불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약사전이 세워졌다. 89㎡(27평) 규모의 지상 3층은 전통 한옥 양식으로 조성됐으며,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처럼 흥천사는 이번 전법회관 불사 회향과 함께 요사채 건립이 마무리되면, 지난 2012년부터 10여년간 이어져 온 흥천사 1차 중창 불사(전체의 70%)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한편 이날 기념 법회에서는 주지 정관스님의 전법회관 불사 경과 보고에 이어 흥천사 불사도감 금곡 스님이 이번 불사에 공로가 큰 설계 회사인 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와 시공사인 이무희 (주)성익건설 대표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패와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금곡 스님은 지난 10년간의 불사 과정을 설명하며 “은사이신 신흥사 조실 무산스님께서는 생전에 주민들과 이웃을 먼저 살펴라. 그분들이 부처님이라고 강조하셨다”며 “그 유지를 받들어 스님과 불자들만을 위해 도량을 넓히고 가꾸는 불사가 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세워 중창불사와 함께 경로잔치,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금 지원, 무료 커피 및 생수 나눔, 경내 통행로 개방 등 지역민과 하나 되기 위한 다양한 자비실천행도 펼쳐 왔다”고 회고했다.

이어 금곡 스님은 “그동안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도량’ ‘지역과 함께 하는 도량’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도량’ ‘종교를 초월해 함께하고 싶은 차별없는 도량’ ‘언제나 와서 쉴 수 있는 힐링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력을 피력했다.

이날 주요 내빈으로는 손창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류재환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 명호근 어울림코리아 회장, 이채원 前 불교방송 사장, 김봉석 법률사무소 금상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경주 황용사지서 금동제 유물 대량 출토

불교문화재硏 발굴 성과 공개
금동귀면 등 20여 점 발굴돼
“황용사 위상 알게 해줄 유물”



불교문화재연구소가 경주 황용사에서 발굴한 금동제 유물 20여 점. 투조 금동귀면, 금동 사자상 등 다양하다.

경주 동대봉산에 위치한 황용사의 당시 위상을 알게 해줄 금동유물들이 대량 출토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는 10월 22일 경주 황용사에서 ‘황용사지 발굴조사 성과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주 황용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이며, 경주 보문단지에서 감포 방면으로 넘어가는 동대봉산(옛 은점산) 절골에 위치하고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경주 황용사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시굴 ·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중심사역 서쪽구간에 대한 조사로 투조 금동귀면과 더불어 금동보당 당간 · 기단, 금동불상 대의편, 금동사자상, 금동연봉, 금동촉대 받침 등 금동제 유물 20여 점이 다량 출토됐다.

특히, 지난 조사 이후 2점이 추가로 확인된 투조 금동귀면은 기존 금동귀면과 비슷하지만 크기나 수염, 귀모양 등이 조금씩 다른것이 특징이다.

금동보당 당간과 기단부는 지금까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적이 없다. 이번 황용사지서 처음 확인되었는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토된 가장 큰 보당이다. 현재 리움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고려시대 보당과 비교하면 리움미술관 소장품이 73.8㎝인것에 비해 황용사 출토 금동보당은 잔존해 있는 당간부와 지주부만 110㎝로 대형이며, 시기도 황용사 당간이 앞선다.

이 같은 유물들은 창건 당시 황용사의 격이 경주 지역 내 주요 사찰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높았던 것을 보여준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몸과 마음 쉬어가는 휴식주간 열린다

마인드디자인, 11월 5~15일 서울릴랙스위크 개최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서울릴랙스위크가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과 서울 전역에서 펼쳐진다. 사회적 기업 마인드디자인은 2020서울국제불교박람회 기간 중 서울릴랙스위크를 개최, 명상이나 힐링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시내 90여 개 업체와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멘탈 케어’의 장을 펼친다고 밝혔다.

지난 해 첫 선을 보인 서울릴랙스위크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서울 내 치유 공간을 한 장의 지도로 엮어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그동안 명상 등의 정신문화에 관심이 있어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알지 못했던 명상 입문자들에게는 공간적, 문화적 지평을 넓혀주었다는 평이다.

올해 서울릴랙스위크에는 명상, 요가, 템플스테이, 한옥스테이, 채식, 공방, 공간 등 확장된 주제에 걸맞는 단체 90여 곳이 참여한다.

서울릴랙스위크의 오프라인 가이드맵은 서울 주요 거점 및 상점에 비치되며, 참가 업체와 프로그램은 명상 커뮤니티 플랫폼 마인드그라운드(www.mindground.co.kr)와 제휴해 소개된다. 서울릴랙스위크와 연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내면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각종 상품을 제안하는 마인드풀마켓(www.mindfulmarket.kr)도 눈길을 끈다. 마인드디자인이 만든 마인드풀마켓은 인터넷을 통해 명상 소품을 소개하고 결제하도록 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이번 서울릴랙스위크 개최와 함께 런칭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주관단체인 마인드디자인은 박람회 기간 온라인 명상 웹컨퍼런스 ‘끌어안음’도 개최한다. 11월 5~8일 나흘간 열리는 ‘끌어안음’에서는 달라이라마, 타라 브랙, 현봉스님 등 세계적 명상지도자들이 온라인 강연에 나선다.

노덕현 기자



10월, 11월 #소규모출발 #4명부터 #5명부터 #8명부터

1박 2일
기차타고 떠나는
템플스테이

● 전남권 세계의 자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대흥사 템플스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스님, 계십니다 **송광사(순천) 템플스테이**
절로~ 절로~ 무등산 정기 받으러 가자 **증심사 템플스테이**

● 전북권 나는 쉬고 싶다 I want to Rest **금산사 템플스테이**
사람 그리고 자연과의 동화 **내소사 템플스테이**
선운사 가을 숲속에서 休 **선운사 템플스테이**

● 경상권 지리산 자락 하동의 무릉도원 **쌍계사(하동) 템플스테이**
내 마음의 생각을 봅니다, 직지in心 **직지사 템플스테이**

※코스별 세부 일정은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공통포함사항 : 왕복 열차비, 연계차량비, 관광지 입장료, 템플스테이 체험비, 가이드비, 온누리상품권

문의 1544-7755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 또는 앱